

## 우리회 제15대 허진규 회장 퇴임

3년간 발자취 담은 화보집 및 DVD 영상집 · 감사패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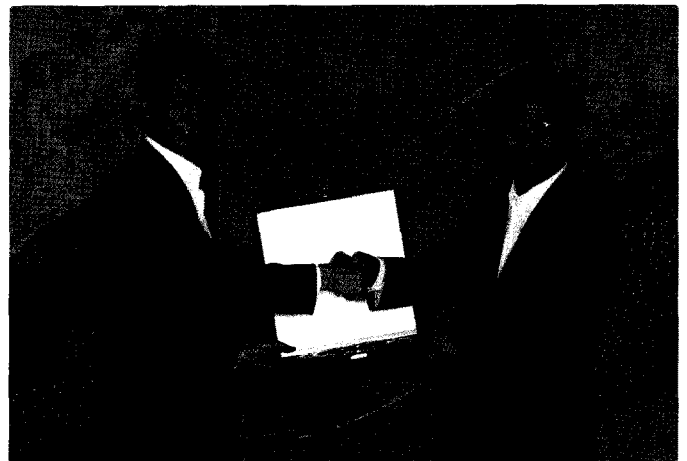


○ 리회 허진규 회장이 지난 6월 23일을 끝으로 3년간의 정든 공직생활을 마감하였다.

ㄷ 허진규 회장은 '08년 한국발명진흥회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재임하는 동안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범국민적 발명문화 확산, 우리회 위상 제고에 공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우리회 임직원을 대표하여 최종협 부회장은 허진규 회장의 3년간 발자취를 담은 화보집과 DVD 영상집을 증정하고 감사의 글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허 회장은 퇴임 인사에서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3년은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라며,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과 애정을 드리며,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한국발명진흥회에 몸 담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고 마무리했다.





## 2011 창의발명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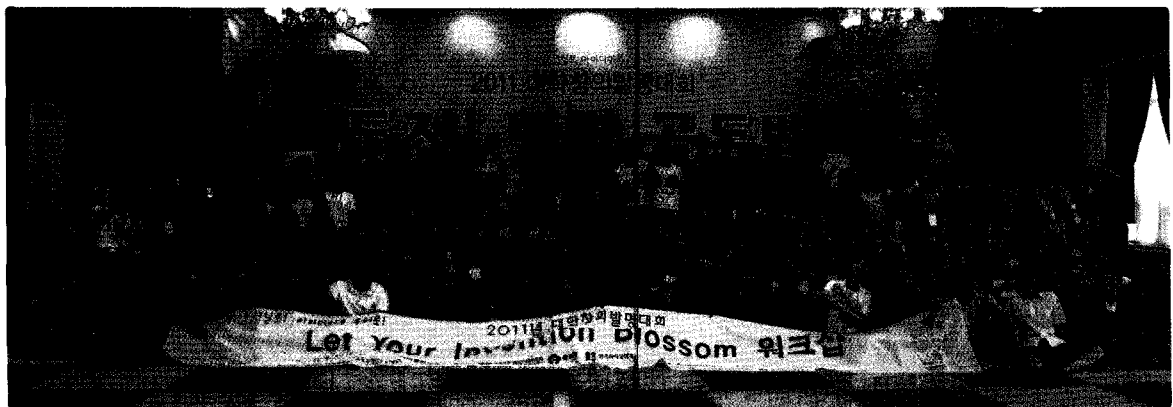
대학창의발명대회 발명연구부문 1차 통과자 181팀 대상



리회는 대학창의발명대회 발명연구부문 1차 통과자 181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화성에 있는 라비돌 리조트에서 「2011 창의발명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의 지재권 의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본인 발명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수상자들의 사례 소개 등 대회 준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에는 도전! 발명골든벨을 개최하여 발명워크숍 과정별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 및 팀 빌딩 연구과제에 대한 시상은 김영민 특허청 차장이 하였다.



##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 및 모의법정 개최 실제 미국 특허 소송 체험 기회 제공



이 리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 및 모의법정' 과정을 개최, 미국 특허 소송의 핵심인 분쟁실무 및 모의재판등 실제 미국 특허 소송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과정은 해외 특허분쟁을 준비하는 국내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계 전반에서 10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참여하였으며, 현직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미국 및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Finnegan 및 법무법인 광장의 특허 소송 변호사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미국 특허 소송법정 간접체험 기회 제공 등 교육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강생들이 소송 당사자 또는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소송 단계별 최적의 대처 방법을 습득하여 기업 내 특허보호전략을 수립하는 좋은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과정에 참여한 수강생 중 미국 특허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MCLE Credit을 부여할 예정이다.

MCLE : Mandatory(or Minimum) Continuing Legal Education, 미국 변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 과정

## 우리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워크숍 실시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확립 · 대국민 서비스 증진



○ 리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2교육장에서 기관경영평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T 최종협 부회장을 비롯, 각 팀별 지표담당자가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충남대학교 김홍식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우수평가기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회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 제13회 CIPO 조찬세미나 개최

‘NPE 출현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 환경변화’ 주제로 진행

○ 리회는 지난 6월 15일 오전 7시 노보텔엠베서더 강남 샴페인홀에서 제13회 CIPO 조찬세미나를 개최  
 T 하였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는 ‘NPE 출현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 환경변화’ 라는 주제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김광준 전무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수원 특허청장을 비롯,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과 삼성전자 이동근 상무, LG전자 전생규 상무 등 총 57명이 참석하였다.

기업 경영진 대상의 지식재산 정보공유의 장인 CIPO 조찬세미나는 2009년부터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경영의 확산 등을 위해 특허청 · 우리회 ·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가 공동 개최하고 있다.

## KIPA 사회봉사단 나눔 발명 등 공헌활동 실시

나눔 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KIPA 사회봉사단 확대 운영



지난 3월 11일 국무총리 주제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리회는 나눔 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나눔발명·사회공헌·수감자재통합)를 발굴하고 기존에 구성되었던 KIPA 사회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였다.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먼저 지난 6월 17일 대이작도에 위치한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총 9명으로 구성)를 방문, 발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 28일에는 경기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를 방문, 교도소 수감자들이 사회 재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의 왕연중 소장이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란 주제로 발명특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다일복지재단을 방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회 사회봉사단은 노숙자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점심식사를 대접했고, 식사 후에는 식당 환경정리 등 마무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향후 교육취약계층인 학생, 사회적 소외계층인 교도소 수감자 및 불우이웃에게 나눔 발명·수감자 재통합·사회공헌 등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2011 피츠버그국제발명품전시회

금상 13개, 장려금상 7개, 대만특별상 3개 등 23개 수상

지난 6월 17일 폐막된 「2011 피츠버그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우리나라는 금상 13개, 장려금상 7개, 대만 특별상 3개 등 총 23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상은 골드키드의 '승물놀이구', 일경실업의 '탈부착이 간편한 구두뿔굽', 아이존의 '시력회복운동기용 제어장치', 진생사이언스의 '선삼(진세노사이드 Rg5를 함유하는 항함제 조성물)', (주)엔유씨전자의 '원액기', 한국전력의 '고력볼트 디지털 축력 측정장치', (주)바로콕의 '원 터치 개폐 가능한 마개와 용기', 김주안의 '그림, 캐릭터 표현이 가능해진 하노이 탑 퍼즐', (주)디비전의 'LED 조명 디스플레이 장치', 이터하이의 '고속 최적화된 무선 마이크 장치 및 그 제어방법', 크라운텍의 '청취 장치' 등이 차지했다.

특히 일경실업의 '탈부착이 간편한 구두뿔굽'과 엔유씨전자의 '원액기', 바로콕의 '원 터치 개폐 가능한 마개와 용기'는 대만특별상까지 받아 눈길을 모았다.

또 일경실업의 '수해 방지용 포대', 한국전력의 '맨홀 감시용 무선 시스템', (주)광진의 '볼 지압기', 보스킨 피부과학의 '마사지 장치용 이중구조 마사지 컵', 에다스의 '기능성 고탄력 방석', 에이앤케이의 '발가락 신발', 워터볼(주)의 '물놀이용 구형 공기 튜브' 등에게 장려금상이 돌아갔다.

한편 미국 피츠버그발명전은 스위스 제네바발명전, 독일 뉘른베르그발명전과 함께 세계적인 발명전으로 올해 26회째다. 이 행사엔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18개 나라(365여 점)가 발명품을 출품했다.

## 『 6월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 회원명 : (주)소명특수건설
- 대표자 : 박상권
- 업태/종목 : 건설업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99-8  
첨단상가 라-208호
- 전화번호 : 042-861-2300
- 홈페이지주소 : www.smsconst.co.kr



- 회원명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 대표자 : 허경만
- 업태/종목 : 서비스/지식재산거래, 평가, 사업화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10층
- 전화번호 : 02-6004-8000
- 홈페이지주소 : www.i-discovery.com